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평택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임광명**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Students

Kwang-Myeong Lim

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Korea

Abstrac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s are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Data were collected from 265 usable questionnaires among college students in Pyeongtek University.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yielded three dimensions of self-esteem which were talent/attitude and capacity/pride. And results of factor analysis also yielded three dimensions of social supports which were family, friends, and professor suppor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apacity/pride and all of social support factors affected significantly for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female and aptitude for students' major had a positive affec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t was suggested that self-esteem, social supports, and aptitude for students' major should be considered in college management policy.

Key words: self-esteem, social supports, adjustment, college life

1. 서론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김경민, 2011; 김미정, 2001; 이숙경·유지현, 2008; 임민아, 2008; 정효주·정향인, 2012; 홍계옥·강혜원, 2010; Friedlander, Reid, Shupak, & Cribbie, 2007; Grant-Vallone, Reid, Umali, & Pohlet, 2003; Lau, Chan, & Lam, 2018; Li, Albert, & Dwelle, 2014; Wetzel, 2009). 그 이유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 전형방법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각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신입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재학생들이다. 이들은 대학 입학 후에 중도에 탈락하여 대학재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외부에 대학을 알리는 일차적 정보원으로서 대학홍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대학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졸업 후에도 동문으로써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후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은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도 학교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많은

주요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 이 보고서는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임광명) 전화: 031-659-8387, e-mail: lkm3719@ptu.ac.kr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알리미 사이트(2018년 4월 1일 기준)에 공시된 대학 중 도탈락률은 전국 평균 4.5%로 9만 387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2012년 4.1%, 2016년 4.2%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학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밖의 다양한 이유로 인한 대학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중운·김지현, 2013).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30~40%의 학생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고, 매 학기마다 20% 이상의 학생들이 학사제적, 자살,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권석만, 2010).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인간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 또는 청소년기, 때로는 성인기로 분류되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발달과업을 성취해야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또한 취업문제, 학업문제, 대인관계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급격한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사회적, 자아적 욕구가 고조되므로 욕구좌절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경미, 2010).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서 자신의 가치관 및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대학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며(이숙경·유지현, 2008; 임민아, 2008; 김경민, 2011) 이로 인하여 우울증, 약물중독,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김미정, 2001). 홍계옥과 강혜원(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적대감, 불만족 등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를 하여, 자신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도 유능한 인적자원인 대학생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 스트레스, 심리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사회 환경을 의미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사람의 행동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ussen, Conger & Kagan, 1980).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말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자신에 대한 존경과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Rosenberg, 1979). 이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선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사람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수월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도 만족한다(Doener, 1984). 대학생들도 대학생활을 접할 때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과 안녕감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주관적 복지감도 높다(박은민, 2000).

또한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도 적응의 측면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수진, 2000). Thoits(1986)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응을 도와주고, 적절한 예방과 중재노력을 시도할 때 적응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대학생이 어떠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적응 또는 부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원과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교수 같은 사회적 자원이라 하였다(김은정·이정운·오경자, 1992).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김휘운, 2012; 심지연, 2013; 정지은, 2013)와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강민정, 2015; 조영주, 2015; 문재영, 2013)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김지연, 2015; 서란, 2014; 오미진, 2014)로 개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대학생(평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변인, 사회적지지변인을 차례로 투입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의 책임자 혹은 관리들이 보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주관적 평가로서 자신의 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Rosenberg, 1965).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으로 자신의 능력, 성공여부와 같은 개인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평가나 판단이다(Coopersmith, 1967).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아상, 자기개념, 자기자신감, 자기평가, 자아정체감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아존중감과 더욱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Harter(2006)는 자기개념은 영역 특정적 자기에 대한 평가로 정의내리면서 우수한 운동선수가 운동 영역에 대한 자기개념은 긍정적이지만 학업영역에 대한 자기개념은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전체적 평가로 자기상(Self-Image)이나 자기가치(Self-Worth)에 해당하는 전체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아개념은 평가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이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의미는 전체적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서 성취하고자하는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애정이 많고, 안정적이며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 낮은 학교성적, 폭력 등의 위험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nnellan, Trzesniewski & Robins, 2006). 정원식(1998)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불안, 불행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여 불안정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Tafarodi 와 Swann(1995)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 수용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지만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자기멸시, 자기거부의 경향이 많으며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특성과 대학생활의 적응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유발이나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중요 부분인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학업적응과 관련이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점수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시험점수에 대한 기대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보다 낮았다(Geist & Boreski, 1982; Morrison & Morrison, 1978).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순희(2002)의 논문에서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모두 학교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보다 사회적 회피행동을 많이 보여 대인관계에서 소외감,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smith, 1967).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소현(2011)의 논문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적게 나타났으며, 박지연(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업적응과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의 부작용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미래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이었으며(제문희, 2012) 대학생 중 상담을 받는 많은 학생들이 자아존중감 저하로 인해 대학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자, 1994). 김소영(1996)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양현정(200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등 자아존중감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은 대학생활 적응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윤희, 2012; 김혜수, 2014; 박은민, 2000; 양현정, 2003; 이용현, 2015; 박희수 · 문승연, 2014; 최송미, 1999).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Castle, 2004; Grant-Vallone, 2004; Mayer, 1991; Wonacott, 2001).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2.2. 사회적 지지

1970년대 중반에 예방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김성남, 2005) 부모, 친구, 이웃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도움,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대학생들의 생활적응을 돕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한다는 선행연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명숙, 2014; 김대성, 2015; 김영광, 2012; 김지은, 2012; 박창렬, 2013; 정지은, 2013; 하영숙, 2013).

대학생 시기에는 심리적 변화뿐 아니라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활용가능한 대처자원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지선근, 1999) 기준에 가지고 있던 지지자원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지지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이시기에 형성되는 적응양식이 이후 일생동안 이뤄지는 적응체제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하다(서희재, 2005).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자원으로서 사용되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응 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 효과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완충적 효과(간접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Cohen & Willis, 1985). 사회적 지지는 대규모의 사회적 조직망이 개인에게 안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자기 가치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소라, 2003). 또한 사회체계 내에서 개인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나누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 완화시켜 개인의 변화나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정서를 강화시키는(Brownell & Shumaker, 1984) 간접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김혜수, 2014; Cohen & Hoberman, 1983).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관심, 칭찬, 정보, 도구적 도움 등이 포함된 대인관계 교류라고 정의하였으며 Cohen과 Wills(1985)도 사회적 지지를 편안함, 서비스제공, 충고 등을 제공하는 대인관계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Dimond(1979)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 정보제공을 포함한 대인관계 제공 및 상호작용이라 정의하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ethington과 Kessler(1986)의 연구에서는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실제 제공된 지지 보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객관적 지지와 지각하는 지지는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지지를 받았더라도 지지라고 지각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Barrera(1986)도 비슷하게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정서적 적응에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 부적응이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연수(2009)의 연구에서도 학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윤소연(1993)도 객관적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이외에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영향을 더욱 미치는 것은 객관적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김소라, 2004; 김현정, 2007; 송종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으로 직계가족, 친척, 또래, 기타로 나누거나(송선미, 1993) 부모, 교사, 학급동료, 친한 친구로 나누기도 한다(Hauter, 1985). 특히, 사회적 지지원으로 가족, 교사, 또래로 구분한 Dubow와 Ullman(1989)의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강성희, 1991; 김명숙, 1994; 김수민, 1988; 심미경, 1986).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친구에게서 받는 지지가 증가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Furman & Buhrmester, 1992)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통한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근거를 이룬다(최영희, 1983). 부모는 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감 확인, 애정, 물질적·정서적 도움같은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 우울, 불안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높인다(Kostelecky & Lemperss, 1998).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교부적응이 낮아지고(이경상, 2011)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경·이형실, 2007; 정규석, 2004; Holanhan, Valentiner & Moos, 1995). 한 개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형제동료, 동료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형제와의 평등한 관계를 통한 경험들은 성인의 수평적 사회관계망의 기초

가 된다(김혜수, 2014).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 독립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점차 가족과 교사의 지지보다 친구의 지지가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고(박정민, 2015) 친구와의 애착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이경상, 2011; 임수경 · 이형실, 2007; 정규석, 2004)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지은 · 신용주, 2003; 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 2006). 대학생에게 대학은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고, 교수는 지적 성숙, 정서적 ·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규석(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애착과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학업적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인간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준다(황명숙 · 정은희, 2008).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가족, 친구, 교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보호, 완충,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교수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3. 대학생활 적응과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의 조화를 의미한다(Shaffer, 1956). 즉, 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행동을 변화시키는 계속적인 과정(Gates, 1970)인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정은희, 1992). 따라서 성숙된 적응행동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가 조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개인이 변화하고, 갈등이나 욕구좌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는 환경을 최대화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에서 언급된 요소인 개인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김소라, 2003). 즉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속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학업적으로 성취해 나가며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고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신체적, 성격적 욕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어 정서적으로는 강렬해지고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많으며 사회적, 자아적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서

욕구좌절의 기회는 많아지고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적응에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임선화, 1987).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활의 적응 문제는 ‘적응의 위기’라 불릴 만큼 발달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박은민, 2001).

이와같이 대학생의 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다른 시기의 적응문제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적응의 주요요인으로 학업적 성취수준이 다뤄졌고(Gerdes & Mallinckorodt, 1994),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도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었다(Aitkin, 1982).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들이 개발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적, 사회적 적응 이외에도 개인적, 정서적 적응에 대한 측정도구들도 개발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일반적 특성, 개인내적 요인인 심리적 특성,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성, 학년, 전공계열, 전공만족도, 전공적성도와 같은 일반적 특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진수경(199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도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학업적 적응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김원경, 2013; 박정희 · 김홍석, 2009; 옥경희, 2001). 반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혜수, 2014; 박희수 · 문승연, 2014; 이지선, 2010)도 있어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다.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수준은 신입생의 적응수준이 낮다는 연구(김원경, 2013; 박정희 · 김홍석, 2009; 박희수 · 문승연, 2014)와 신입생의 적응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유정이 · 김수리, 2008; 이용현, 2016),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혜수, 2014)가 있다. 전공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인문, 사회계열의 학생들이 적응도가 높다는 연구(김원경, 2013; 김혜수, 2014)가 있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았다(김혜수, 2014; 김희수 · 박승연, 2014; 이경완 · 문인오 · 박숙경, 2013). 김혜수(2014)의 연구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생생활 적응수준이 높았다.

두 번째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스트레스 등의 개인내적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로 특히 심리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Mussen, Conger & Kagan, 1980).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김혜수, 2014; Meyer, 1991; Castle, 2004; Grant-Vallone 2004; Wonacott, 2001)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은선, 정경아, 2015)로 볼 때 자아존중감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의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특성, 즉 사회적지지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로 대학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김경미, 2010; 김지현, 2013; 김원경, 2013; 김종운·현채송, 2004; Garnefski, 2001),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해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옥경희 2001).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성적도 좋아지며, 바람직한 행동 특성이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박상민, 2008; 최선미, 2010; 이재성, 2012).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김미화, 2006; 노진하, 2007; 임수경·이형실, 2007; 하명서·이순복, 2009),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 일수록 (박은민, 2011)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듯 학생들은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매개효과로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하였는데(김혜수, 2014; 박희수, 2015)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김소라, 2003; 김종운·김지현, 2013)에서는 부모의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박진영, 2003; 박은민, 2011; 박진영, 2012; 양현정, 2003; 이용현, 2015; 임수경·이형실, 2007; Castle, 2004; Grant-Vallone, 2003; Friedlander, Reid, Shupak, & Shupak, 2007; Li, Albert, & Dwelle, 2014; Mayer, 1991; Wonacott, 2001), 사회적지지(곽민경·서보준, 2011; 김소라, 2003; 김원경, 2013; 박진영, 2012; 양현정, 2003; Cohen, Hoberman, 1983; Grant-Vallone, 2003; Friedlander, Reid, Shupak, & Shupak, 2007; Lauu, Chann, & Lamm, 2018;

Wetzel, 2007)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사회적지지 중에서 가족과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임수경, 이형실, 2007; Li, Albert, & Dwelle, 2014; Wetzel, 2007)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으로는 남자일수록(양현정, 2003; 박진영, 2012; 김원경, 2013; 이용현, 2015),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양현정, 2003), 연령이나 학년이 높을수록(정효주, 정향인, 2012; 이용현, 2015)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정도와(정효주, 정향인, 2012),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정효주, 정향인, 2012)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영역에 있어서도 인문사회계열과 사범계열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평택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69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김충희(1995)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3$ 이었다.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중 허영선(2009)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로 구분한 후 각 5문항을 선별해서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5$ 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문은식(2002)의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최임숙(2004)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이었다.

〈표 1〉 대학생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모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박선영 (2003)	대학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함	
양현정 (2003)	대학생	일반적특성(재수경험,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정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재수경험이 없고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에 더 잘적응	
김소라 (2004)	대학생	일반적특성(성별), 부모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남학생 일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함	
임수경 · 이형실 (2007)	청소년	일반적특성(성별),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적응	성별의 차이는 없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 그리고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	
곽민경 · 서보준 (2011)	대구광역시 조손가정 청소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함	
박은민 (2011)	대학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인식한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에 잘적응	
박진영 (2012)	성인대학생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대학생활적응	남성이, 50대 이상 집단의 집단이, 자아존중감과 학업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그리고 사회적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의 대학생활적응이 높음	
정효주 ·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동아리활동여부, 지원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연령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교수와의 접촉 횟수가 많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음	
김원경 (2013)	대학생	일반적특성(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남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인문사회계열과 사범계열 학생이,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	
김중운 · 김지현 (2013)	대학생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와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음	
이용현 (2015)	대학생	일반적특성(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여자보다 남자가, 1학년보다 2학년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에 잘적응	
Cohen · Hoberman (1983)	대학생	긍정적사건,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긍정적 사건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증상, 부정적특성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	
Grant-Vallone (2003)	대학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학생지원 서비스참여	대학생활적응, 대학혁신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학생지원 서비스 및 상담에 많이 참여한 학생이 잘 적응하고 혁신할 가능성이 높음	
Friedlander · Reid · Shupak · Cribbie (2007)	신입대학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을 높임	
Wetzel (2007)	대학생	일반적특성(부모의학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웰빙	부모의 학력이 낮은 그룹에서 학업적응이 심리적 웰빙을 예측할 수 있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그룹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심리적 웰빙을 예측할 수 있음	
Li · Albert · Dwelle (2014)	대학생	부모와 동료의 지원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예측	
Lau · Chann · Lamm (2018)	홍콩대학 신입생	독립변인 사회적지지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가족과 동료의 지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능력을 높이며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임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2단계 분석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차원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많은 변인을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변인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분석방법으로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베리맥스 회전법은 요인부하

량을 단순화하여 요인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요인분석에서 변수와 요인수의 선택에는 Hair et al.(2006)에 의해 제시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적용 기준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5이상, 요인고유치(eigenvalues) 1 이상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는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할 것 등이다. 우선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 표

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는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zero matrix)인지에 대한 검정이며,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주어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표본적절성 검사 결과의 적용 기본은 0.7이상인데, 본 연구에서는 0.7이상의 값만 활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이 요인범주 내에서 평가항목들의 결합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분석을 하였다. 둘째, 도출된 자아 존중감 차원과 사회적 지지차원 중에서 대학생 활 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for window ver.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령은 19세 이하가 100명으로 46.0%로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45명으로 17.1%, 21세가 41명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1학년이 103명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학년이 63명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고, 3학년이 59명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IT공과대학 전공

이 55명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물류대학 64명으로 24.3%, 사회서비스대학 84명으로 31.9%, 문화예술대학 60명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151명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공적성은 '보통'이 110명으로 41.8%, '맞다'가 90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숙소는 통학이 가장 많은 170명으로 64.4%, 기숙사가 50명으로 19.0%, 자취/하숙이 40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친구는 없다고 158명으로 59.3%를 차지하고 있다

4.2.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다른 요인과 겹쳐 제거된 변수는 없었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를 실시하였고 Kaiser-Meyer-Olkin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값이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867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0개의 대학생 자아 존중감 속성으로 2개 요인이 만들어졌다. 2개 요인은 총 분산의 62.480%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부하량은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 지지 속성의 Cronbach α 값은 0.843였으며,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연령		19세 이하	100 (46.0)	성별	남자	112 (42.6)	
		20세	45 (17.1)			여자	151 (57.4)
		21세	41 (15.6)		전공적성	매우 맞지 않다	11 (4.2)
		22세	29 (11.0)			맞지 않다	24 (9.1%)
		23세	33 (12.5)			보통	110 (41.8)
		24세	15 (5.7)			맞다	90 (34.2)
학년		1학년	103 (39.5)	숙소	매우 맞다	28 (10.6)	
		2학년	63 (24.1)		통학	170 (64.4)	
		3학년	59 (22.6)		자취/하숙	40 (15.2)	
		4학년	36 (13.8)		기숙사	50 (19.0)	
전공		IT공과대학	55 (20.9)	이성친구	친인척/기타	3 (1.2)	
		국제물류대학	64 (24.3)		없다	158 (59.3)	
		사회서비스대학	84 (31.9)		있다	107 (40.7)	
		문화예술대학	60 (22.8)				

의 Cronbach α 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 1은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의 5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47.881%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중에서 자질 및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 ‘자질 및 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r)’,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r)’의 4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4.59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자아 존중감 중에서 긍지 및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어 ‘역량 및 긍지’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가 3.89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3.75),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r)’가 2.3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가 2.43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인의 평균값은 ‘자질 및 태도’(3.69), ‘역량 및 긍지’(2.54) 순으로 나타났다.

4.3. 사회적지지 요인분석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다른 요인과 겹쳐 제거된 변수는 없었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를 실시하였고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값이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895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5개의 대학생 사회적 지지 속성으로 3개 요인이 만들어졌다.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74.17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 지지 속성의 Cronbach α 값은 0.902였으며,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 1은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우리 가족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준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준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의 5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44.16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가족 지지와 관련되어 있어 ‘가족 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내 친구들과

<표 3>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변 수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평균 ^a
요인 1: 자질 및 태도		4.309	47.881	.900	3.69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862				3.6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850				3.63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846				3.52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842				3.89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686				3.75
요인 2: 역량 및 긍지		1.314	14.599	.638	2.54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	.785				2.54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r)	.763				2.34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	.634				2.43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r)	.491				2.86
설명분산의 누적값 = 62.480%, KMO = .86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 1007.029 (df = 35, p < 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표 4)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변 수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평균 ^a
요인 1: 가족 지지 (family supports)		6.624	44.163	.952	3.90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905				3.79
우리 가족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준다	.897				3.94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준다	.873				3.90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871				3.98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	.850				3.90
요인 2: 친구 지지 (friend supports)		2.392	15.949	.926	3.96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	.887				3.95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846				3.97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835				4.12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835				3.84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 준다	.822				3.94
요인 3: 교수 지지 (professor supports)		2.111	14.076	.822	3.08
우리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807				2.80
우리 교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	.799				3.18
나는 교수님과 매우 가깝다	.756				2.77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교수님은 잘 도와준다	.732				3.44
나는 교수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675				3.20

설명분산의 누적값 = 74.178%, KMO = .89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 2989.546 ($df = 105, p < 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 준다'의 5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5.94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사회적 지지의 친구 지지와 관련되어 있어 '친구 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우리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 교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 '나는 교수님과 매우 가깝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교수님은 잘 도와준다', '나는 교수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의 5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4.076%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사회적 지지 중에서 교수 지지와 관련되어 있어 '교수 지지'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가 4.12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3.98),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3.97), '우리 가족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준다'(3.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교수님과 매우 가깝다'가 2.7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우리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가 2.80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인의 평균값은 '친구 지지'(3.96), '가족 지지'(3.90), '교수 지지'(3.08) 순으로 나타났다.

4.4.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사회경제적 특성 및 학교생활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06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7.6%이다. 학교생활 특성 가운데 전공적성($\beta=.348$)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공적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는 모형1에 '자아 존중감'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0.522, p<0.01$).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은 47.8%이다. 모형2는 모형1에서 자아 존중감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설명력의 증가량(ΔR^2)은 .302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특성 중에서 '전공적성'($\beta=.235,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 존중감 중에서 '역량 및 긍지'($\beta=.39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 2에서는 전공적성이 높고, 자아 존중감 중에서 '역량 및 긍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Constant	2.240		5.769**	1.428		4.425**	.806		2.901**	
성별 (남자=1, 여자=2)	-.117	-.116	-1.843	-.095	-.094	-1.863	-.114	-.113	-2.595*	
연령	.031	.134	1.693	-.003	-.012	-.184	-.005	-.020	-.366	
학년	-.073	-.158	-1.963	-.029	-.063	-.963	-.030	-.065	-1.192	
전공적성 (1=매우 맞지 않음, 4=매우 맞음)	.182	.348	5.865**	.123	.235	4.860**	.060	.115	2.689**	
이성친구 (1=없음, 2=있음)	.097	.096	1.623	.066	.064	1.368	.030	.029	.729	
자아 존중감	자질 및 태도 요인			.153	.212	2.845	.088	.122	1.925	
	역량 및 금지 요인			.319	.398	5.454**	.192	.240	3.801**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요인						.144	.177	3.669**	
	친구지지 요인						.239	.255	5.215**	
	교수지지 요인						.210	.213	4.574**	
<i>F</i>		10.068**			30.522**			40.581**		
<i>R</i> ²		.176			.478			.638		
Adjusted <i>R</i> ²		.159			.463			.623		
ΔR^2		-			.302**			.160**		

*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변수투입방법: enter, *p(0.05, **p(0.01 Durbin-Watson=1.834

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3에서는 모델2에서 사회적지지 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력은 63.8%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서 자아 존중감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설명력의 증가량(ΔR^2)은 .160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40.581, p<0.01$).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beta=-.113, p<0.05$), 전공적성($\beta=.115, p<0.01$)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자아 존중감 중에서 ‘역량 및 금지’ 요인($\beta=.240, p<0.01$)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요인, 즉 가족 지지($\beta=.177, p<0.01$), 친구 지지($\beta=.255, p<0.01$), 교수 지지($\beta=.213, p<0.01$)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남자이고 전공적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 존중감 중에서 ‘역량 및 금지’ 요인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평택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질 및 태도’, ‘역량 및 금지’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강성희, 1991; 김명숙, 1994; 김수민, 1988; 심미경, 1986; Dubow & Ullman, 1989)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차원들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형1은 학교생활 특성 가운데 전공적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혜수, 2014; 김희수·박승연, 2014; 이경완·문인오·박숙경, 2013)와 비슷한 결과이다. 모형2는 모형1에 ‘자아 존중감’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아 존중감’ 중 ‘역량 및 금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었던 선행연구(박선영, 2003; 박은민, 2011; 박진영, 2012; 양현정, 2003; 이용현, 2015; 임수경·이형실, 2007; Castle, 2004; Grant-Vallone, 2003; Friedlander, Reid, Shupak, & Shupak, 2007; Li, Albert, & Dwelle, 2014; Mayer, 1991; Wonacott, 2001)와 유사한 결과이나 자아존중감의 총체적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자아존중감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모형3은 모형2에 사회적지지 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전공적성, ‘역량 및 금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3요인, 즉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

수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에 대한 적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기간동안 주로 대학입시에 목표를 두고 생활하다 진지한 고민없이 취업률이나 주위의 권유, 성적 등으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 적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경완·문인오·박숙경(201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도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중 '역량 및 긍지'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및 긍지' 요인은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의 4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자질 및 태도'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역량 및 긍지' 요인은 주로 개인의 역량과 긍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교과, 비교과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변질되어 컴퓨터, 영어와 같은 강좌만이 강조되고 자아존중감을 위한 인성교육의 부재를 가져왔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자아존중감, 특히 '역량 및 긍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교육 교과, 비교과를 신설하고 확충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대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곽민경·서보준, 2011; 김소라, 2003; 김원경, 2013; 박진영, 2012; 양현정, 2003; Cohen, Hoberman, 1983; Grant-Vallone, 2003; Friedlander, Reid, Shupak, & Shupak, 2007; Lauu, Chann, & Lamm, 2018; Wetzal, 2007)과 비슷한 결과이다.

사회적지지 중 '친구지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도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고립감, 단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들과 MT,

체육대회, 선후배 연계 동아리프로그램 등과 같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친구지지 기반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업시간에도 팀기반 학습법이나 토론수업을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학생 상호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수지지'도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 전담제, 상담교수제도 강화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지도, 진로지도, 대학생활 적응 지도 등을 실시하여 교수가 심리적 지지원으로서 학생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 완화시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정규석, 2004; 황명숙·정은희 2008). 효율적인 학생상담을 위해선 전문적 상담기법에 관한 학교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학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필요시 전문적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평택대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을 샘플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강미진.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곽민경, & 서보준.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1(1), 75-112.
3. 김경민. (2011). 대학생의 낙관성과 행복추구경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성남.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김소라. (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7. 김소영. (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소현. (2010).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 변화 및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종단적연구. 계명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순희. (200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예정, & 서윤경. (2018). 대학생의 자기 존중감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847-866.
11. 김원경. (20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윤희. (2012). 남자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 생활적응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김은정, 이정운, & 오경자. (1992).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학회 학술발표논문집*(pp. 525-534). 제92차 한국심리 학회 연차대회.
14. 김중운, &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9), 248-259.
15. 김지현.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 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김중희. (1995). 해외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김혜래. (2013). 청년기 후기 발달적 특성이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사회적유대감, 진로효능감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85-105.
18.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6(2), 219-241.
19.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박진영. (2013).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47-75.
21. 박은민. (2011).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박정민. (2015). 사회적지지가 지체장애인의 장애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 박지연. (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박희수, & 문승연. (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 과.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97-218.
25. 서은선, & 정경아. (2015). 일 대학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사과학회지*, 17(3), 213-226.
26. 서희채. (2005).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분리-개별화가 대 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심지연. (2013). 대학생의 지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 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이경완, 문인오, & 박숙경. (201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4(2), 15-27.
29. 양현정. (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30. 여운철. (2003). 자아존중감이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31. 유정희. (2015). 대학의 삶에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 구.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 이용현. (201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성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33. 이정애, & 이해숙. (1998).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5(2), 34.
34. 임민아. (2007).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정원식. (1986). 교사의 의무와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 고 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정효주, &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 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 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37. 제문희. (2012).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차경호. (2004).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 소년 상담연구*, 9, 7-26.
39. 차영희. (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대 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최송미. (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최영희. (1983). 지지적 간호중재가 가족 지지행위와 환자 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 최임숙. (2004). 성역할 정체감과 대인 갈등관리 및 학교 적응 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 최해림. (1999). 대학생의 자이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상담가심리치료* 112, 183-197.
44. 허영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Brownell, A., & Shumaker, S. A. (1984). Social support: An introduction to a complex phenomen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9.
46. Castle, J. (2004). Persistence and the adult learner.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5(2), 166-170.
47.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125.
48.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49. Friedlander, L. J., Reid, G. J., Shupak, N., & Cribbie, R.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3), 259-274.
50.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3, 103-115.
51. Geist, C. R., & Borecki, S. (1982).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s a predictor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611-613.
52. Grant-Vallone, E., Reid, K. Umali, C., & Pohlet, E. (2003).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tudent support services on student's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5(3), 255-274.
53. Harter, S. (1985).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Sut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J: Erlbaum.
54.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s*. Boston, MA: Addison-Wiley Publishing Co.
55. Lauu, E. Y. H, Chann, K. K. S., & Lamm, C. B. (2018).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utcomes of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in Hong Kong: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9(1), 129-134.
56. Li, S. T., Albert, A. B., & Dwelle, D. G. (2014). Parental and peer support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5(2), 120-138.
57. Morrison, T. L., & Morrison, R. L. (1978). Self-esteem, need for approval, and self-estimates of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43, 503-507.
58. Rosenberg, M. (1965). *Social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9. Rogenberg, M. (1986). Self 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t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J: Erlbaum.
60. Tafarodi, R. W., & Swan, W. B. Jr. (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Assessment*, 65(2), 32-342.
61. Thoits, P. A. (1986).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49.
62. Wetzel, J. L. (2009). The effects of first generation status on th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A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college among a unique group of non-traditional students. Ph.D.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Detroit Merch.
63. Wilson, W.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Received 10 August 2019; Revised 08 September 2019; Accepted 15 September 2019



Dr. Kwang-Myeong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Sense of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est
Address: (3825)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lkm3719@ptu.ac.kr
phone: 82-31-659-8387